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평생학습도시 만든다

## 장애 유형별 맞춤 프로그램 20개 운영

해운대구는 지난해에 이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해운대구는 지난해 국립특수교육원이 주관한 ‘2023년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에 선정되어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한 10개 기관과 함께 25개 사업들을 추진하였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유관 기관과 협약을 맺고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 및 활동가 양성과정, 동행콘서트, 해운대 역사탐방을 운영했다. 유관기관들은 글쓰기, 핸드벨, 그림책, 원예치료를 비롯한 맞춤 강좌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이

자신감과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학습자들은 프로그램 참여 후 활발한 사회참여 활동을 펼쳐 수필공모전 수상, 각종 행사 공연, 작품집 출간을 비롯한 성과를 이뤄냈다.

해운대구는 ‘2024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공모를 신청하여 선정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2024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을 목표로 △장애 친화적 평생학습 여건 마련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동아리 지원 및 직무교육 지원 △장애인과 비장애인 통합프로그램 운영 △권역별 거점시설을

활용하여 장애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특히 공예, 텃밭활동, 베이킹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서로 소통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도서관과 749-5638

# 부산항 직접 느끼고 로봇 연구소 체험

## 해운대구진로교육지원센터 청소년 위한 겨울방학 프로그램 운영



해운대구진로교육지원센터가 겨울방학을 맞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연다. 방학 기간을 이용해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창의력을 증진시키고자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1월 중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부산항의 과거와 현재, 미래’, ‘자율주행 로봇 연구소 체험’이다. ‘부산항의 과거와 현재, 미래’ 프로그램은 초·중등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산항의 역사와 발전, 부산항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하였다. 청소년들이 글로벌 허브항인 부산항 홍보관 체험과 항만

안내선인 ‘새누리호’에 탑승해 부산항을 직접 느껴볼 수 있다. 쉽게 접하기 힘든 항만 활동을 체험하면서 얻은 새로운 지식과 경험으로 미래의 진로 선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율주행 로봇 연구소 체험’ 프로그램은 해운대구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기술과 로봇 제어에 대한 흥미를 키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하였다.

해운대구진로교육지원센터 김영희 팀장은 “청소년들이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방학을 이용해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며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기획하려 노력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운대구 진로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dreamnuri.haeunda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749-2934

김수연 평생학습 구민기자  
timeless1984@naver.com

## 늘배움신문 4월부터 달라져요!



4월부터 늘배움신문을 온라인으로만 배부한다. 기존의 종이신문을 줄여 기후위기 및 환경보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늘배움신문은 지난 2014년 평생학습 구민기자 양성과정을 수료한 구민과 해운대구가 힘을 합쳐 만든 신문이다. 2014년 10월 제1호 이후 해마다 분기별로 꾸준히 발간하여 올해 10주년을 맞이했다.

늘배움신문은 그동안 여러 평생학습 현장 소식들을 구민들께 전달해왔다. 평생학습 기관과 인기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을 안내했으며 평생학습 인물과 학습동아리도 지면으로 소개하여 그동안 소개한 기관, 인물, 학습동아리가 103건에 달한다. 늘배움신문과 평생학습구민기자단은 꾸준한 활동과 노력을 인정받아 2021년 시청자미디어재단 부산센터가 주최한 2021 시민미디어축제에서 ‘늘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앞으로 늘배움신문은 카카오톡과 해운대구 블로그, 해운대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카카오톡에 ‘해운대구 평생학습 친구’를 채널 추가하면 카카오톡으로 신문을 전송하며 해운대구 평생학습관(<https://www.haeundae.go.kr/edu/>) 자료실에서 신문 자료를 내려 받아 볼 수 있다.

# 식물 그리며 활력소 얻어요

##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의 ‘보타니컬아트’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은 ‘보타니컬아트’ 프로그램을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보타니컬아트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열린다. 수강생은 매월 모집하고 현재 7명이 참여하고 있다.

보타니컬아트는 색연필을 활용하여 다양한 색깔로 식물과 꽃을 사실적으로 그려내는 식물 세밀화를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수강생은 각자 그리고 싶은 식물이나 꽃을 사진으로 찍어 전사하고 전사물을 보고 그린다. 그림을 그리기 전에 먼저 모양과 색깔을 세밀히 관찰한다. 수강생은 관심과 실력이 모두 다르므로 각각 다른 그림을 그린다. 모양이나 색깔 표현에 기술적인 요소가 필요할 때는 강사가 포인트를 짚어준다.

수강생들은 매년 태화강 국가정원 국제보타니컬아트 공모전에 작품을 출품하여 다수의 수강생이 입상 또는 특선에 선정되고 있다.

옥호정 강사는 “카메라가 나오기 이전에는 식물분류를 위해 과학적 정밀화를 그렸는데 여기에 예술적 요소가 더해지면서 현재의 보타니컬아트로 발전하였고 여가활동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라며 수강생 대부분이 중년 이상이고 취미로 배우고 있어 관심 있는 식물이나 꽃을 자세하게 그리면서 아트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지도한다고 설명하였다. 공모전에 출품을 하면서 수강생 대부분이 실력향상을 보였고 입상까지 하니 즐겁게 참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수강생 배문희(재송동, 공모전 입상 2회) 씨는 “꽃을 좋아하니까 내가 사진 찍은 걸 그대로 그릴 수가 있어 좋고 집중하게 되니까 심신이 안정되기도 하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수강생 정숙영(좌동, 공모전 입상 2회) 씨는 “100세 시대에 그림을 배워 두면 치매예방에 도움이 되고 혼자 놀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보타니컬아트 프로그램을 만난 거예요. 색연필



하고 스케치북만 있으면 야외에 나가서도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 좋다.”라고 말했다. 수강생 최영애(재송2동, 공모전 입상 1회, 특선 1회) 씨는 “하나씩 완성되면 기분이 좋아져요. 집에 걸어놓고 보고 있으면 성취감이 느껴지고 행복호르몬이 나오면서 젊어지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은 보타니컬아트 프로그램을 올해도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매월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지역주민은 언제든지 신청하면 된다.

문의)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 782-5005

정철석 평생학습 구민기자  
mysevenace@naver.com

# 보고 듣고 만지며 배워요

## 반여도서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반여도서관이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문을 열었다. 해운대구가 부산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반여도서관에 새로 공간을 조성하고 지난 10월 24일 개관했다.

반여도서관 ‘들락날락’은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메타버스 상상놀이터를 운영하고 있다. 4면 실감형 체험관은 미래도시와 우주공간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아이들의 움직임을 인식해서 벽면 스크린 영상이 다양하게 변화한다. 아이들은 벽을 터치하며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직접 색칠한 그림을 스캔해서 화면에 내보낼 수 있다. 반여3동 어린이집에서 참여한 도아린(만4세) 어린이는 “우주선을 색칠하는 게 제일 재미있었어요.”라며 직접 색칠한 우주선이 벽면을 따라 화면에 떠다니는 모습을 신기해했다.

한글, 영어, 수학, 미술, 코딩과 같은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통해 지식을 키울 수 있는 스마트미디어 테이블도 있다. 틀린 그림 찾기과 그림그리기가 좋았다는 이수민(만4세) 어린이는 “색연필 없이도 화

면에 예쁜 색깔로 색칠할 수 있어서 정말 마음에 들어요.”라고 말했다.

아이들의 동작을 인식해 각종 게임을 즐기는 모션 프로젝션 시스템과 함께 로봇 공연장도 인기가 많다.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추는 로봇들을 관람하며 아이들은 오감을 극대화할 수 있다.

반여도서관 ‘들락날락’은 메타버스 상상놀이터 외에도 책 읽어주는 로봇, AR 도서, 미디어아트 갤러리 등 다양한 체험 공간과 독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메타버스 상상놀이터에서 진행되는 ‘반여 들락날락 체험교실’에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해운대 인문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개인은 단체 체험 교실 운영시간 10:30~11:30을 제외하고 9시~17시 사이에 현장에서 접수 후 이용 가능하다(월요일 휴관).

문의)749-6086

전희경 평생학습 구민기자  
hkhk79@hotmail.com

## 늘 배움 제작후기 ...

### 정철석 평생학습 구민기자

평생학습 구민기자 활동을 하면서 취재를 가는 곳마다 수강생의 배움에 대한 열정이 뜨겁게 타오르는 현장임을 확인했다. 중년 이상의 수강생이 많았다. 해운대구 평생학습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새해에도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

### 조현진 평생학습 구민기자

사락사락

어느새 종이신문을 읽는 것이 특별한 일이 되었다. 나에게는 늘배움신문이 특별한 존재이다.

취재하며 배움을 위해 먼 거리에서 오시는 수강생, 수강생들을 위해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고 하는 열혈 강사, 구민들에게 더 좋은 환경에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담당자 등 모두 평생학습에 진심인 분들을 만났다. 신문 제작하며 평생학습에 대한 열정을 배우고 해운대구민으로서 자부심까지 느꼈다.



● 더배움학교 프로그램 매니저 활동 후기

## 나누고 배우는 학습공간 ‘더배움학교’



△나만의 이모티콘 캐릭터 굿즈 만들기(무지개커뮤니티센터)



△수채화 캘리그래피(반여마을공방)

해운대구는 지역 내 여러 공간을 평생학습 활동 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더배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더배움학교는 공간을 이용하는 더배움교실과 교육이 열리는 더배움프로그램이 있다. 잘 알려지지 않아 주민 활용도가 낮은 공간이나 공방, 카페 등이 더배움교실로 변신하였다. 지난해에는 12개 공간이 더배움교실로 운영되었고, 23개 더배움프로그램 강좌가 열렸다.

여러 공간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되다 보니, 프로그램 담당자를 대신할 여러 명의 매니저가 필요하였다. 주민과 공간관계자로 구성된 13명의 매니저는 수강생에게 공지사항 전달, 출결관리, 수업공간 관리, 프로그램 모니터링 등 운영 전반을 책임졌다.

12개 더배움교실 중 반여1동 반여마을공방과 반여2동 무지개커뮤니티센터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의 매니저로 활동한 경험을 소개한다. 반여마을공방에서

는 ‘수채화 캘리그래피’ 수업을 하였고, 무지개커뮤니티센터에서는 ‘나만의 이모티콘 캐릭터 굿즈 만들기’와 ‘퍼스널 T.P.O 메이크업’ 수업이 진행되었다.

반여마을공방과 무지개커뮤니티센터는 10여 명이 독립적으로 사용하기 적당한 공간이었다. 학습에 필요한 여러 개의 테이블과 의자가 구비되어 있었다. 입구에 부착되어 있는 더배움학교 현판은 간결하지만 공간을 더 돋보이게 하였다. 반여1동 반여행복경로당 3층에 있는 반여마을공방은 승강기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무지개커뮤니티센터는 지하이지만 공기청정기를 이용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었다.

두 곳에서 하는 수업은 매주 1회 총 6회 차로 진행되었다. 첫 수업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공간에 수강생이 찾아오기 어렵지 않았는지 물어보고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한 수강생에게 연락하였다. 수강생들은 “이런 공간이 있는지 몰랐는데 더배움학교 덕분에 알게 되

었다”라고 반응해 더배움학교로 활용되는 공간이 더 많은 주민에게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다.

더배움학교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무료이고 재료비는 본인부담이다. 수강생은 강좌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거나 수업 전 재료를 강사에게 송금하면 강사가 준비한 재료를 수강생에게 제공하였다. 무료로 진행되는 강좌지만 강사의 가르침은 빛났다. 수강생은 강사의 상세한 설명을 들으며 적극적으로 배웠다.

반여마을공방에서 진행한 수채화 캘리그래피는 캘리그래피의 기초를 익혀 간단한 수채화 그림을 응용하여 책갈피와 엽서를 꾸몄다. 무지개커뮤니티센터에서 진행한 나만의 이모티콘 캐릭터 굿즈 만들기는 태블릿 PC와 태블릿 펜을 활용하여 ‘스케치북’이라는 앱에서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들어 열쇠고리 또는 스티커로 제작하였다. 퍼스널 T.P.O 메이크업은 자신에게 맞는 퍼스널컬러와 화장법을 알려주고 직접 실습하였다.

매니저는 틈틈이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했으며 수강생과 강사가 불편하지 않게 살폈다. 강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니저의 역할이 숨은 조력자 같아서 뿌듯하였다. 해운대구 안에 있는 여러 공간이 더배움교실로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공간이 필요한 주민은 더배움교실을 이용하길 바란다. 7인 이상 공간이 필요한 모임은 절차에 맞춰 신청하면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자신의 공간을 학습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카페, 공방 등은 절차를 거쳐 공유 공간으로 등록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평생학습관 늘배움터 홈페이지(<https://www.haeundae.go.kr/edu>)에서 확인 가능하다.

조현진 평생학습 구민기자  
jjonji486@naver.com

## 기후 위기 그림책으로 알려요

### 지속 가능한 환경 이야기 그림책 펴낸 송국클럽하우스



“지구가 어떤위기에 처해있고 세상 대다수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해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심각해질 수 있는 주제들이지만 아기자기한 그림책을 통해 재밌고 이해하기 쉬웠어요.” 송국클럽하우스 교육행정부에서 활동하는 정재형 씨. 자신이 쓴 글이 수필공모전에서 상도 받았으며 행복한 웃음을 지어보였다.

정신 재활시설 송국클럽하우스 회원들이 그림책을 펴냈다. 송국클럽하우스는 2022년 말 회원들을 대상으로 2023년 진행할 프로그램 기획을 위한 설문문을 진행하였다. 회원들은 기후 위기와 환경보호에 관련한 공부를 하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회원들의 요구에 맞춰 환경과 관련된 활동을 고민하다가 UN이 제시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17가지 중 주제로 그림책을 읽어보면서 감수성을 향상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다. 20회기 동안 회원들은 기후위기와 환경에 대한 공부와 글쓰기를 하였다. 쓰레기 줍기 등 환경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글쓰기 수업을 계속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때마침 열리는 수필 공모전에 회원 25명 참여해 금상을 포함해 총 9명이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지난 달에는 작가의 그림만 있는 그림책에 회원들이 글을 입힌 책도 출간하였다.

송국클럽하우스는 만성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정신 재활시설이다. 1996년 해운대구 우동에 문을 연 송국클럽하우스는 회원들이 자신의 재능으로 이룬 성공적인 경험을 통해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2년부터 꾸준히 영어와 미술, 클래식 음악 등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회원들 중에는 학교를 다니다가 장애의 발생으로 학교를 그만둔 경우가 많아 학습에 대한 욕구가 크다. 이런 회원들을 위해 송국클럽하우스는 회원들의 감수성을 키우고 다양한 학습욕구를 채워줄 프로그램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국클럽하우스 취업지원부에서 활동하는 고장훈 씨는 “송국클럽하우스에 오기전에는 모든일에 부정적이었고 삶을 비관해서 극단적인 생각까지



한 적이 있었어요. 이 곳에서 활동하면서 수동적인 삶이 능동적으로 바뀌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라며 “2024년의 목표는 독립 취업이다.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겠다.”라고 덧붙였다.

이근희 사회복지사는 “정규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회원들에게 평생학습은 무척 중요하다. 해운대구와 도서관 등의 지원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회원들의 역량 강화는 물론이고 만족도도 무척 높다.”라며 해운대구가 장애인의 문화활동 뿐만아니라 여가 증진까지 책임지는 문화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수연 평생학습 구민기자 [timeless1984@naver.com](mailto:timeless1984@naver.com)



# “가족과 함께하는 수업이 더 좋아요”

## 도서관에서 만나는 크리스마스 프로그램



△ 해운대인문학도서관 <크리스마스 산타리스 만들기>

지난 연말 크리스마스를 맞아 도서관이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다. 해운대인문학도서관은 지난 12월 9일 ‘크리스마스 산타리스 만들기’ 강좌를 열었



△ 재송어린이도서관 <크리스마스 오르골 만들기>

다. 오후 1시에는 초등 1~2학년, 오후 3시에는 초등 3~4학년을 대상으로 부모님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족 강좌로 운영했다. 아빠와 함께 참석한 이

가빈(신재초 2학년) 학생은 “여러 가지 색깔 폼클레이를 조금씩 떼어 붙여서 산타 얼굴을 만드는 게 재미있어요.”라며 LED 불을 켜니 반짝반짝 빛나서 예뻐다고 말했다. “아빠와 함께 얘기 나누면서 만들기를 하니깐 더 좋아요.”라며 다음에도 아빠와 함께 수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바람도 덧붙였다. 이영균(재송동) 씨는 “그동안 가빈이가 많이 컸구나. 새삼스럽게 느껴요.”라며 아이와 좋은 추억을 만든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재송어린이도서관은 초등 1~3학년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일일강좌 ‘크리스마스 오르골 만들기’ 강좌를 열었다. 김다윤(신재초 3학년) 학생은 “픽셀을 하나하나 끼워서 올라프를 만드는 게 좋았어요.”라며 폼클레이로 직접 꾸며서 완성한 오르골에서 나오는 크리스마스 캐롤 소리가 마음에 든다고 만족해했다.

전희경 평생학습 구민기자  
hkhk79@hotmail.com

### 사진으로 보는

## 2023 해운대 꿈꾸는 마을축제

‘2023년 해운대 꿈꾸는 마을축제’가 지난해 10월 21일 수영강 시민공원에서 펼쳐졌다. 화창한 가을 날씨 속에 주민들의 참여가 활발하였다. ‘2030 미래세대를 위한 마을의 꿈’이란 주제로 오전 11시 식전공연으로 축제의 문을 열었다.

수영강 시민공원은 남녀노소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삼삼오오 찾아와 부스를 돌며 하나라도 더 체험하려는 모습에서 축제의 활기가 느껴졌다. 평생학습유관기관 및 단체 25개 부스를 비롯해 각 복지관과 복지시설 부스 28개, 해운대구 18개 동의 ‘우리동 재발견’ 부스까지 모두 70여 개 부스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었다.

환경 그림그리기 대회와 환경 노래 대회, 동백가족 글자랑 대회,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 대회가 펼쳐졌다.

8개 팀이 참여한 환경 노래 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 대회가 이어졌다. 반송1동 우먼댄스 유랑단의 댄스공연부터 18개 팀이 사물놀이, 악기, 다양한 댄스와 부채춤 등을 선보이며 지난 1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냈다. 경연이 벌어지는 동안 무대와 객석, 지나가는 관람객이 하나로 어우러져 축제가 더욱 풍성해졌다.

이하나(중동) 씨는 동생이 글짓기 대회에 참여한다고 같이 왔는데 굉장히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었다며 “대개 아이들 위주의 체험이 많은데 해운대구는 어르신들도 적극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하고 알차게 꾸며져 있고, 휴식이랑 쉬이 있어 좋다.”라고 말했다. 캠핑의자나 안마의자 등이 있어 어르신이 쉬어가며 여유롭게 참여하고 즐기는 게 인상적이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소정(반여동) 씨는 할머니 무대 공연을 응원하기 위해 가족이 다 왔다고 했다. 큰아들 성호는 LED액자 만드는 게 제일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두 아들은 신나게 체험하고 공연도 즐거워 가족 나들이가 행복했다고 평가했다. 딸과 함께 색채심리 테라피를 체험한 최은희(우동) 씨는 색채심리가 딸과 잘 맞아서 깜짝 놀랐고, 딸은 글라인더로 커피를 갈아보고 냄새를 맡아보는 체험이 좋았다고 꼽았다.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고 와서 힘들었는데 다양한 체험 덕분에 보람 있었다고 말했다.

하점숙 평생학습 구민기자  
point0811@korea.com



△ 와이어로 가을풍경 만들기



△ 싱잉볼(노래하는 그릇) 체험



△ 에코백 그림 그리기



△ 경연대회 연습하는 모습



△ 마음을 담은 LED 액자 만들기



△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



● 평생학습은 나의 **힘**

# 평생학습 강사로 삶을 그리다

## 그림으로 행복 찾는 화가이자 평생학습 강사 박영미 씨

초등학교 시절부터 뛰어난 그림 실력을 나타낸 영미 씨는 어릴 적부터 화가가 꿈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림을 사랑했다고 한다. 영미 씨는 그림 공부를 계속해 화가로 활동하면서 장애인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에게 예술 강사로서 재능을 나누며 자신의 삶을 그림으로 채우고 있다. 평생학습 강사의 길에 발을 디딘 것은 동아리 모임에서의 경험이었다고 한다. 동아리 모임을 하던 학습관 강의실에서 강사 모집 공고를 보고 재능을 나누면서 소통할 수 있는 활동이라는 생각으로 강사모집에 지원하게 되었다. 평생학습 강사인 영미 씨는 특히 주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의미 있다고 말했다. 가족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나만을 위한 시간을 마련해 휴식을 얻는 시간이 부족한 주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다. 수강생이 예상치 못한 결과물을 완성할 때 자신에게 새로운 만족감을 느끼고, 수강생의 자

신감과 자존감이 향상 되는 것을 보면서 큰 보람을 얻는다고 한다.

영미 씨는 요즘 젠텅글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젠텅글은 명사가 릭 로버츠와 예술가 마리아 토마스가 창시한 명상 예술이다.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 그린 반복적인 패턴으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영미 씨는 그림을 통해 자존감 향상에 기여하는 젠텅글의 매력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동안 평생학습 강사로 활동하면서 보람 있는 일도 많았다. 여든이 넘으신 수강생이 “어린 손주도 모르는 젠텅글 그림을 내가 그린다. 집에 가서 자랑하면서 아이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너무 기쁘다.”라는 이야기에 함께 즐거워 하기도 하였다. 입원 중인 친정엄마에게 자신이 배운 패턴을 가르쳐 드리면서 나누는 소중한 순간이 무척 행복했다고 말하는 수강생의 이야기에 감동받기도 했다. 자신



이 나누는 재능인 그림이 강력한 치유의 도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영미 씨는 “젠텅글은 내적 고요함, 집중, 평온한 상태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도구로 여러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미 유럽에서는 명상과 치유 효과를 인정받아 학교, 기업, 지역복지센터, 병원, 정신건강 센터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도 명상 예술이 필요한 곳에서 젠텅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하는 바람을 말했다. 영미 씨는 앞으로도 창의적인 자아표현, 자기발견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명상예술 젠텅글을 알리는 일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영미 씨가 더욱 다양한 예술 활동으로 사람들에게 변화와 희망을 전하고 자신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

김수연 평생학습 구민기자  
timeless1984@naver.com

● 평생교육기관을 가다

# 농아인에게 복지서비스 지원

## 부산농아인협회 해운대구지회 부설 해운대구수어통역센터



△ 미술공예 프로그램

부산농아인협회 해운대구지회 부설 해운대구수어통역센터(이하 해운대구수어통역센터)는 청각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장애인 인식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관이다. 해운대구에 등록된 청각 및 언어장애인 2,700여 명의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8월 문을 열었다. 도시철도 2호선 해운대역 인근에 있는 비스타동원 상가A동 203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물 내에 편의시설 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어 누구나 방문하기 쉬운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

해운대구수어통역센터는 연 3회 농인(청각장애인)으로 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의 고유 언어인 한국수어를 배울 수 있는 수어교실을 연다. 수준별로 초급, 중급, 고급반을 운영한다. 수어교실에서 수어를 배워 수어통역사 자격증까지 도전할 수



△ 인문학 프로그램

있다. 또 한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한국수어’를 배워 수어 관련 행사에 참여하거나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해운대구수어통역센터는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에서 오는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힘쓰고 있다. 대외행사는 물론 경찰서, 검찰청, 관공서, 교육기관, 병원, 민원, 취업과 같은 농인의 생활 분야 전반에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방송과 강연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보 습득과 사회 통합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해에는 해운대구가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사업에 선정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대상으로 미술공예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수어교육과 수어노래교실을 열었다. 미술공예 프로그램으로



△ 청각장애 이해교육

자이언트안 가방과 꽃풍선을 제작하며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게 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였다. 수강생들은 교육에 만족하며 수강 결과물을 친구들에게 선물한다며 여러 개를 만들어 가기도 하였다. 비장애인에겐 수어교육 및 수어노래교실을 운영하여 수어를 즐겁게 배울 기회를 제공하였고 농인에 대한 이해도도 높였다.

홍영미 실장은 “지난해에는 청각 및 언어장애인 회원들과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박물관 관람, 요트투어, 문화체험을 통한 사회화 활동에도 많이 참여하였으며, 새해에도 계속해서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복지 서비스와 올바른 농문화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활발한 활동을 계획 중에 있다.”라고 말하였다.

노규범 평생학습구민기자  
kbnoh@pknu.ac.kr

우리동네 평생학습 강좌안내

해운대구 평생학습관		해운대구 삼어로 133번길 50 ☎ 051-749-5635		
강좌명	운영기간	운영시간	대상 및 인원	수강료
캘리그래피 2급	2.15.~5.7.	화목, 10:00~13:00	성인 15명	70,000원 자격증발급비별도
책 읽어주는 북 내레이터 양성과정 (스피치지도사 2급)	2.14~5.8.	수 09:30~12:30	성인 20명	20,000원 자격증발급비별도
보자기아트 에듀케이터 3급	2.14~5.8.	수 10:00~12:00	성인 20명	50,000원 자격증발급비별도
누구나 그리는 드로잉	2.14.~5.8.	수 13:00~15:00	성인 15명	-
스마트폰 사진반	2.16.~5.10.	금 14:00~16:00	성인 20명	-
심리상담사 2급	2.15.~5.2.	목 10:00~13:00	성인 15명	자격증발급비별도
싱잉볼	2.15.~5.2.	목 10:00~12:00	성인 15명	-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2.19~5.13.	월 14:00~16:00	성인 20명	-
책과 함께 떠나는 예술가 기행	2.13.~4.30.	화 14:00~16:00	성인 25명	10,000원
스포츠스태킹코치	2.15.~5.2.	목 14:00~16:00	성인 15명	-
패션 이미지메이킹	2.16.~5.3.	금 10:00~11:30	성인 10명	10,000원
떠나지 않고 즐기는 여행: 영화를 보다, 대만을 걷다	2.19~5.13.	월 10:00~12:00	성인 25명	-
부모가 배우는 우리 아이 첫 코딩	2.13.~4.30.	화 10:00~12:00	성인 25명	-

인문학도서관		해운대구 반여로 132 ☎ 051-749-6581		
강좌명	운영기간	운영시간	대상 및 인원	수강료
엄마, 아빠는 무얼하고 놀았을까?	1.5.~1.26.	금, 16:00~18:00	6~7세 유아 15명	무료 (재료 3,000원)
아트 잉글리시 버디	1.4.~1.25.	목, 16:00~18:00	초등1~2학년 15명	무료 (재료비 16,000원)
창으력 쑥쑥! 나만의 캐릭터 굿즈 만들기	1.2.~1.23.	화, 16:00~18:00	초등3~4학년 20명	무료 (재료비 15,000원)
똑딱똑딱! 어린이 건축가	1.3.~1.24.	수, 16:00~18:00	초등3~4학년 20명	무료 (재료비 20,000원)
퇴근길 인문학 아카데미	2월~7월	매월 넷째주 수요일 19:00~21:00	지역주민 60명	무료

재송어린이도서관		해운대구 해운대로76번길 35-1 ☎ 051-749-7631		
강좌명	운영기간	운영시간	대상 및 인원	수강료
큐! 감성자극놀이 동시야, 놀자	1.10.~1.31.	수, 16:00~18:00	유아 6~7세 15명	무료
그림책, 마술을 만나다	1.4.~1.25.	목, 16:00~18:00	초등1~2학년 15명	무료
미래의 리더, 스피치를 만나다!	1.9.~1.30.	화, 16:00~18:00	초등3~4학년 15명	무료
나는 나를 키운다! 어린이 진로 원정대	1.3.~1.27.	토, 10:00~12:00	초등4~6학년 15명	무료
겨울방학 독서교실	1.17~1.19	수~금, 9:30~12:30	초등3~4학년 20명	무료
영어그림책 이야기극장	연중	화 16:00~17:00	6~7세 유아 15명	없음
유아 이야기극장	연중	금 16:00~17:00	6~7세 유아 15명	없음
생각쟁이 독서회	3~12월	매월 세 번째 수요일 16:00~17:00	초등1~2학년 12 명	없음
토요스쿨	연중	매월 세 번째 토요일 13:00~17:00	초등1~4학년 8학부모 (2인1조)20팀	없음

우동 행정복지센터		해운대구 해운대로 612 ☎ 051-749-5812		
강좌명	운영기간	운영시간	대상 및 인원	수강료
서예 (한문)	1.2.~3.29.	수 10:30~12:30	22명	30,000원
서예 (한글) &캘리그래피	1.2.~3.29.	화,목 13:20~14:20	22명	30,000원
다 도	1.2.~3.29.	금 10:00~12:00	25명	30,000원
댄스스포츠(초급)	1.2.~3.29.	화,목 12:00~13:00	35명	30,000원
댄스스포츠(중급)	1.2.~3.29.	화,목 11:00~12:00	35명	30,000원
댄스스포츠(고급)	1.2.~3.29.	화,목 10:00~11:00	35명	30,000원
노래교실	1.2.~3.29.	월 10:30~12:00	50명	15,000원
요 가	1.2.~3.29.	월,수 15:00~16:00	30명	30,000원
영어회화	1.2.~3.29.	화 15:00~17:00	22명	30,000원
우쿨렐레	1.2.~3.29.	목 10:00~12:00	22명	30,000원

우2동 행정복지센터		해운대구 해운대로383번가길 7 ☎ 051-749-6634		
강좌명	운영기간	운영시간	대상 및 인원	수강료(분기)
노래교실	연중	수 10:00~12:00	성인 80명	15,000원
다도	연중	목 10:00~12:00	성인 15명	15,000원
라인댄스(왕초급)	연중	월,수 11:40~12:30	성인 30명	30,000원
라인댄스(초급)	연중	화,목 14:00~14:50	성인 30명	30,000원
라인댄스(중급)	연중	화,목 15:00~15:50	성인 30명	30,000원
사물놀이 A반	연중	금 10:00~11:00	성인 30명	15,000원
사물놀이 B반	연중	금 11:00~12:00	성인 30명	15,000원
스포츠댄스(초급)	연중	월,수 12:30~13:30	성인 40명	30,000원
스포츠댄스(중급)	연중	월,수 13:30~14:30	성인 40명	30,000원
에어로빅	연중	화,금 10:00~11:00	성인 30명	30,000원
오카리나	연중	화,금 09:30~10:30	성인 30명	30,000원
요가 A반	연중	월,수 09:20~10:20	성인 30명	30,000원
요가 B반	연중	월,수 10:30~11:30	성인 30명	30,000원
요가 C반	연중	월,수 13:30~14:30	성인 30명	30,000원
우리춤	연중	화 11:10~12:10 금 14:00~15:00	성인 25명	30,000원
일어회화(왕초급)	연중	목 09:20~10:10	성인 30명	15,000원
일어회화(중급)	연중	목 10:20~11:10	성인 30명	15,000원
일어회화(고급)	연중	목 11:20~12:10	성인 30명	15,000원
탁구 A반	연중	화,목 14:30~16:00	성인 25명	30,000원
탁구 B반	연중	화,목 19:00~20:30	성인 25명	30,000원

우3동 행정복지센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104 ☎ 051-749-6662		
강좌명	운영기간	운영시간	대상 및 인원	수강료
원서와함께하는생활영어	1. 2.~3. 29.	월/수 11:00~12:00	성인 30명	30,000
원어민중국어(초급)	1. 2.~3. 29.	월/수 14:30~15:30	성인 20명	30,000
원어민중국어(중급)	1. 2.~3. 29.	월/수 15:30~16:30	성인 20명	30,000
전통공예(한지/민화/등공예)	1. 2.~3. 29.	화 10:00~12:00(2강)	성인 10명	30,000
일본어(초급)	1. 2.~3. 29.	화/목 13:00~14:00	성인 25명	30,000
일본어(중급)	1. 2.~3. 29.	화/목 14:00~15:00	성인 25명	30,000
우드아트	1. 2.~3. 29.	목 10:00~12:00(2강)	성인 15명	30,000
생활도예	1. 2.~3. 29.	금 10:00~12:00(2강)	성인 15명	30,000
건강댄스(중급A)	1. 2.~3. 29.	월/수 09:00~10:00	성인	30,000
건강댄스(중급B)	1. 2.~3. 29.	월/수 10:00~11:00	성인	30,000
건강댄스(초급)	1. 2.~3. 29.	월/수 13:30~14:30	성인	30,000
요가A	1. 2.~3. 29.	화/목 09:00~10:00	성인	30,000
요가B	1. 2.~3. 29.	화/목 10:00~11:00	성인	30,000
기체조	1. 2.~3. 29.	화/목 11:00~12:00	성인	30,000
라인댄스(초급)	1. 2.~3. 29.	화/목 14:00~15:00	성인	30,000
라인댄스(기초입문)	1. 2.~3. 29.	화/목 15:00~16:00	성인	30,000
우리춤교실	1. 2.~3. 29.	화 17:00~18:00	성인	무료
풍물교실	1. 2.~2. 29.	월/금 14:00~15:00	성인	20,000
탁구(초급)	1. 2.~2. 29.	화/목 10:00~11:00	성인	20,000
탁구(중급)	1. 2.~2. 29.	화/목 11:00~12:00	성인	20,000
노래교실	1. 2.~2. 29.	수 11:00~12:00	성인	10,000
경기민요와장구	1. 2.~2. 29.	수 14:00~16:00(2강)	성인	20,000

중동 행정복지센터		해운대구 중동1로 37번길 20 ☎ 051-749-5832		
강좌명	운영기간	운영시간	대상 및 인원	수강료
라인댄스	1.2.~3.31.	월, 수 11:00 ~ 12:00	성인 30명	30,000원
힐링건강댄스 (중급)	1.2.~3.31.	월, 수 11:10 ~ 12:10	성인 30명	30,000원
힐링건강댄스 (초급)	1.2.~3.31.	월, 수 12:10 ~ 13:10	성인 30명	30,000원
웰빙스포츠탄스 (초급)	1.2.~3.31.	목, 금 10:00 ~ 11:00	성인 30명	30,000원
웰빙스포츠탄스 (중급)	1.2.~3.31.	목, 금 11:00 ~ 12:00	성인 30명	30,000원
탁구 교실	1.2.~3.31.	수, 목 15:00 ~ 17:00	성인 24명	30,000원
노래 교실	1.2.~3.31.	화 10:30 ~ 11:30	성인 50명	15,000원
요가 교실	1.2.~3.31.	화, 금 15:30 ~ 16:30	성인 25명	30,000원
생활영어(초급)	1.2.~3.31.	화 10:00 ~ 11:30	성인 25명	30,000원
중국어(초·중급)	1.2.~3.31.	월 09:00 ~ 10:30	성인 20명	30,000원

중2동 행정복지센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433번길 34 ☎ 051-749-6692		
강좌명	운영기간	운영시간	대상 및 인원	수강료
요가교실(오전)	1. 2.~3. 29. (매주 월,수,금)	09:00~09:50	30명	45,000원
요가교실(오후)	1. 2.~3. 29. (매주 월,수,금)	16:20~17:10	30명	45,000원
라인댄스(초급)	1. 2.~3. 29. (매주 화,목)	15:30~16:20	30명	30,000원
라인댄스(중급)	1. 2.~3. 29. (매주 화,목)	14:30~15:20	30명	30,000원
탁구교실(초급)	1. 2.~3. 29. (매주 화,목)	09:00~09:50	20명	30,000원
탁구교실(중급)	1. 2.~3. 29. (매주 화,목)	10:00~10:50	20명	30,000원
오카리나 교실(초급)	1. 2.~3. 29. (매주 수)	13:30~14:20	20명	15,000원
오카리나 교실(중급)	1. 2.~3. 29. (매주 수)	14:30~15:20	20명	15,000원
노래교실	1. 2.~3. 29. (매주 금)	10:00~11:50	50명	30,000원
기초 생활영어	1. 2.~3. 29. (매주 목)	14:00~15:20	20명	30,000원
생활일본어(초급)	1. 2.~3. 29. (매주 화)	14:00~15:20	20명	30,000원
퓨전장구	1. 2.~3. 29. (매주 월)	14:00~15:50	25명	30,000원

좌동 행정복지센터		해운대구 양운로 91 ☎ 051-749-6722		
강좌명	운영기간	운영시간	대상 및 인원	수강료
노래교실	1. 2.~3. 29. (매주 금)	13:30~14:30	성인 100명	15,000
꽃꽂이	1. 2.~3. 29. (매주 화)	14:30~15:30	성인 20명	15,000
라인댄스	1. 2.~3. 29. (매주 월/수)	15:30~16:30	성인 40명	30,000
스포츠댄스	1. 2.~3. 29. (매주 월/수)	16:30~17:30	성인 40명	30,000
사군자(문인화)	1. 2.~3. 29. (매주 월)	13:30~15:30	성인 20명	30,000
서예	1. 2.~3. 29. (매주 수)	10:00~12:00	성인 20명	30,000
오색 한지공예	1. 2.~3. 29. (매주 수)	10:00~11:00	성인 20명	15,000
중국어교실(초급)	1. 2.~3. 29. (매주 화/목)	09:30~10:20	성인 25명	30,000
중국어교실(중급)	1. 2.~3. 29. (매주 화/목)	10:30~11:20	성인 25명	30,000
생활영어(초급)	1. 2.~3. 29. (매주 화/목)	11:30~12:20	성인 30명	30,000
생활영어(중급)	1. 2.~3. 29. (매주 화/목)	10:30~11:20	성인 35명	30,000
생활영어(고급)	1. 2.~3. 29. (매주 화/목)	09:30~10:20	성인 30명	30,000
다도교실	1. 2.~3. 29. (매주 화)	14:00~15:00	성인 20명	15,000
요가	1. 2.~3. 29. (매주 월/수)	14:00~15:00	성인 40명	30,000
캘리그래피	1. 2.~3. 29. (매주 월)	10:00~12:00	성인 20명	30,000
우리춤(초급)	1. 2.~3. 29. (매주 월/수)	09:30~10:30	성인 30명	30,000
우리춤(중급)	1. 2.~3. 29. (매주 월/수)	10:30~11:30	성인 30명	30,000
탁구교실	1. 2.~3. 29. (매주 화/목)	14:00~15:00	성인 20명	30,000
디지털 사진반(초급) 수료제/6개월과정	1. 2.~6. 28. (매주 금)	10:00~12:00	성인 20명	60,000
디지털 사진반(심화) 수료제/6개월과정	1. 2.~6. 28. (매주 월)	10:00~12:00	성인 20명	60,000

좌2동 행정복지센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302 ☎ 051-749-6752		
강좌명	운영기간	운영시간	대상 및 인원	수강료
일어(초급)	1.2.~3.29.	월, 금 11:10~12:10	성인 24명	30,000원
일어(중급)	1.2.~3.29.	월, 금 10:00~11:00	성인 24명	30,000원
생활영어(초급)	1.2.~3.29.	화, 목 16:00~17:00	성인 24명	30,000원
생활영어(중급)	1.2.~3.29.	화, 목 11:00~12:00	성인 24명	30,000원
요가(A반)	1.2.~3.29.	월, 수 09:00~10:00	성인 30명	30,000원
요가(B반)	1.2.~3.29.	월, 수 10:00~11:00	성인 30명	30,000원
요가(C반)	1.2.~3.29.	월, 수 11:00~12:00	성인 30명	30,000원
수채화	1.2.~3.29.	수, 10:00~12:00	성인 20명	30,000원





## 인기강좌

## 세상에 하나뿐인 내 작품을 만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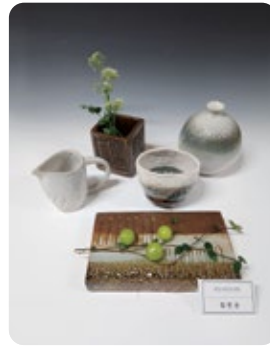
## 전문가의 체계적인 지도 청춘대학 '도예교실'



△ 수업과정



△ 수료생 작품



해운대구는 올해도 중·장년을 위한 청춘대학을 열었다. 여러 과정 중에서 특별히 인기 있었던 도예교실을 찾아가 보았다.

도예교실은 반송에 있는 영산대학교에서 진행하였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2주에 걸쳐 진행 하였다. 도예 관련 기초 지식을 익히고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였다. 도자기 성형기법과 장식기법을 활용해 제작하는 과정에서 점토의 성질을 이해하고 다양한 조형요소를 표현해서 작품을 완성하였다. 특히 배운 기법으로 잔과 머그컵, 필통, 향아리, 화분 등 생활에서 직접 활용할 것들을 만들었다. 도예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에 수강생은 이제까지 경험한 도예체험과는 수준이 달랐다고 평가했다. 과연 할 수 있을까 했던 우려는 사라지고 기대이상

의 결과물에 모두가 큰 만족을 했다. 20명 수강생의 뜨거운 열정이 결원 없이 전원 수료하고 비록 하루지만 전시까지 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리고 웅기마을에 가서 직접 유약을 바르고 초·재별구이를 위해 가마에 넣는 과정까지 체험할 수 있어 더 특별하고 기억에 남는 수업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수강생 김진순(우동) 씨는 “수료식 날 내가 만든 작품에 이름표를 붙이니 더 멋져 보였어요. 수강생들의 작품을 한 곳에 모아 전시를 해보니 석 달간의 열정과 감동이 밀려왔어요.”라고 말했다. 특히 웅기마을에 갔던 2번의 수업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무더위와 비 때문에 힘들었지만 어려운 과정을 거쳐 작품을 만들어 큰 감동으로 남는다고 전했다. 황석환(재송) 씨는 “처음에는 이게 뭐가 되겠냐 싶었지만 만들어 보니까 모양이 나오네요. 가마에 가

서 유약도 발라보고 최종 구워져서 나오는 결과물을 보니 신기하고 이 세상에 하나뿐인 내 작품이잖아요. 굉장한 성취감을 느꼈어요.”라며 생애 첫 작품이라 집에 전시해 놓고 화병에는 꽃도 꽂아두고 작은 잔에는 직접 만든 막걸리를 따라 먹으며 즐기고 있다고 말했다. 황석환 씨는 미래대학(현·청춘대학) 1기 수강생으로 드론수업을 받고 드론조종사 1급과 교관자격증도 땀고, 재작년엔 조리사 자격증반을 수료하고 지난해 1월 한식조리사 자격증도 땀다. 이 모든 것이 평생학습 덕분이라고 말하며 해운대구민으로 산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며 자신을 평생교육의 수혜자라고 자랑하였다. 수강생 김미진(좌동) 씨는 남편의 권유로 청춘대학 프로그램을 알게 됐고 도예교실을 수강하였다. 내가 만든 작품이 집안 곳곳에 잘 쓰이고 있어 의미 있고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김현식(영산대 외래교수) 강사는 30년 넘게 대학에서 후학을 길러낸 도예전문가이다. 김현식 강사는 수강생이 재미있어하는 이유를 “도자기는 불의 예술이다. 유약과 불에 따라 결과물이 완전히 다르게 나온다. 많이 신비롭고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라 더 감흥을 받더라. 거기다 자기가 만든 작품으로 테이블을 장식하고 음식을 차리고 차도 마시는 등 생활 속에서 향유할 수 있게 방향을 제시해 주니 더 좋아한다.”라고 말하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수강생 전원이 수료해 기뻐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2022년 수강생 중 3명이 영산대 도예과 3학년에 편입해 현재 재학 중이라고도 했다.

대학의 전문 인력과 해운대구의 평생학습이 만나 구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도예교실이었다.

문의) 교육도서관과 749-5632

하점숙 평생학습 구민기자

point0811@korea.com

## 눈에 띄는 평생학습 동아리를 찾아서

## 예술활동이자 봉사활동 난타!

## 리듬따라 북 치는 동아리 '신명난타'



평생학습동아리 '신명 난타' 모임이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반여4동 해운대구 평생학습관에서 열린다. 신명난타 회원은 50대~70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8년 봄 배달강좌로 12명의 회원이 난타를 배우기를 시작하였다. 그 뒤 코로나19가 확산될 때에도 줌으로 수업을 계속 이어 나갔다. 2023년부터 한 달에 두 번 해운대구 평생학습관

앞뜰에서 10분~15분 정도 난타 버스킹을 정기적으로 열고 있다. 또 다른 행사의 식전행사로 초청되어 난타 공연을 펼치기도 한다. 공연은 매번 새로운 것을 보여주는 것보다 그동안 모임에서 익혔던 여러 곡 중 몇 개를 응용하여 선보인다. 기본 장단에 다른 곡의 장단을 섞어 비슷한 듯 새로운 곡이 완성된다. 안무 대열을 바꿔가며 곡에 맞추어 변형을 하면서

다른 공연을 보여주기도 한다.

난타는 마구 때리다는 뜻으로 다양한 생활 도구를 악기 대신 활용하여 비트 위주의 퍼포먼스를 펼치는 예술이다. 회원 중에 안무와 곡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분이 있어 기획 단계부터 공연 전반에 걸친 모든 것을 특별한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다.

회원들은 예술 활동을 한다는 생각보다 공연을 통해 봉사 활동을 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난타를 배워서 요양병원이나 주간센터의 활동에 접목시키기 위해 참여했다는 양향희 씨는 “비트나 리듬을 외우고 안무 순서도 외워야 해요. 생각보다 머리를 많이 써야 해서 쉽지 않지만 뇌를 계속 사용할 수 있어 치매예방이 될 것 같아요. 몸을 많이 움직이는 활동이라 체력이 좋아져서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운동하면서 얻는 에너지가 삶에 활력이 되고 자신감도 생겼어요.”라며 지금처럼 스트레스 없이 모임이 오래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신명 난타는 따로 회원을 모집하지는 않는다. 관심 있는 분들이 연락을 하면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회원으로 받는다. 회원이 되려면 북을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몸을 움직이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은 취미활동을 원하는 주민이라면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

문의) 해운대구 평생학습관 749-5635

정혜경 평생학습 구민기자 daehanart@naver.com